

Resurrection Sunday: Sermon Notes

Title - “The resurrection of Jesus – fable or fact”

Scripture - 1st Corinthians 15:1-8

Date preached: April 9th 2023

Scripture: 1st Corinthians 15:1-8

1 Moreover, brethren, I declare to you the gospel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and in which you stand, 2 by which also you are saved, if you hold fast that word which I preached to you—unless you believed in vain.

3 For I delivered 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4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5 and that He was seen by Cephas, then by the twelve. 6 After that He was seen by over five hundred brethren at once, of whom the greater part remain to the present, but some have fallen asleep. 7 After that He was seen by James, then by all the apostles. 8 Then last of all He was seen by me also, as by one born out of due time.

1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2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 무덤에 묻히셨다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5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6 그 다음에는 500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7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8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Introduction

Today we are gathered to celebrate the greatest day in the Christian calendar. We take our place in the long line of believers who have marked this day annually and held it to be special. I am of course referring to Resurrection Sunday. You may be more familiar with the term Easter Sunday. I prefer to call it Resurrection Sunday because that is what we are here to celebrate. It would be great if everyone knew what Easter was all about. But today the real meaning of this event is often lost, minimised or poorly understood. Today for many in the West its seen as an opportunity to exchange chocolate Easter eggs, have a few days off work or think about the Easter bunny. So the word Easter means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With the term “Resurrection Sunday” there is no ambiguity. It's a day to focus on a return from death to life.

We cannot say with any degree of accuracy when Christians first began to celebrate this day.

We do know however that it is the most ancient feast of the Christian church. The oldest records we have of people marking Resurrection Sunday date back to the 2nd century. It's likely however that the feasts origins go back earlier than this. That should give us pause for thought.

A moment for sober reflection. Today we join with the millions of followers of Christ who came before us. We stand on the shoulders of men, women and children who believed what we believe.

Who gathered to meet in houses, caves, underground passages, barns, fields, candle lit churches and cathedrals. Rich and poor, educated and illiterate. United by only one thing. Their belief in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We canno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is event.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lies at the very heart of Christianity. It is without doubt the pivotal point in all human history.

English theologian H.P Liddon writes;

“Faith in the resurrection is the very keystone of the arch of Christian faith, and, when it is removed, all must inevitably crumble into ruin.”

Scholar Michael Green says;

“Christianity does not hold the resurrection to be one of many tenets of belief. Without faith in the resurrection there would be no Christianity at all.”

The Apostle Paul states it very plainly in hi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12 Now if Christ is preached that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ow do some among you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13 Bu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Christ is not risen. 14 And if Christ is not risen, then our preaching is empty and your faith is also empty. (1 Cor 15:12-14)

So given its central place in our belief system it is perhaps understandable that those opposing Christ have sought to attack the very plausibility of the resurrection. They claim that the resurrection is a myth, a fable or a fiction. Basically that it is a story made up by the disciples and those in the early church. They further claim that it cannot stand up to the rigours of a serious examination. What is their motivation for making these claims? The simplest reason is that they do not want it to be true. If Jesus Christ really did come back from the dead it validates all He claimed about Himself. It means you cannot simply ignore or dismiss Him. Many critics are also motivated by a desire to undermine the faith of others. If you can encourage people to doubt, or question what they believe then you can slowly eat away at the foundations of their belief. When your foundations are eroded everything built on top is liable to crumble. This is a serious issue for young Christians today. Sadly many have not grown up with a robust Christian education. Their faith is built on shaky foundations because they have not been taught how to properly defend it. When they get into an academic setting and are challenged they are unable to respond. They begin to doubt and many sadly fall away from the faith.

I trust that your foundations are rock solid. I hope I am preaching to the converted. I hope that like me you have no doubts about what the bible teaches regarding Resurrection Sunday. I am convinced that all the evidence points to only one conclusion. That the Lord Jesus Christ really die rise from the dead just as He prophesied. That on that first resurrection Sunday the tomb was empty. But there may be some listening who have doubts. What is far more likely is that you know, or interact with others who are sceptical. They may challenge or question you regarding the resurrection. How strong and persuasive are your arguments? Perhaps not as good as they might be.

So today we are going to examine some of the most common claims or theories proposed by those who reject the resurrection. We will consider them rationally and logically and most importantly hold them up against scripture.

I should add here that there are many things I could say on each point. Time will not allow me to say all I would like. I will therefore only be providing a brief overview.

오늘 우리는 기독교 달력에서 가장 위대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신자들의 긴 행렬에 동참합니다. 물론 부활절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터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활절이 뭔지 제대로 알면 좋겠지만 오늘날 이 날의 진정한 의미가 종종 상실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초콜릿 달걀을 교환하거나 며칠 쉬는 날로 여기거나 부활절 토끼에 대해 생각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스터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 주일”이라는 용어에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복귀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언제 처음으로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절기라는 것을 압니다. 부활 주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2 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축제의 기원은 이보다 더 일찍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되돌아 볼 시간을 갖게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따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합류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있는 것을 먼저 믿었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의 믿음 덕분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집, 동굴, 지하 통로, 헛간, 들판, 촛불이 켜진 교회 및 성당에서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을 받은 자, 문맹자. 그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며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입니다.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축이 되는 순간입니다. 영국 신학자 H.P Liddon 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아치의 켜기돌이며, 그것이 제거되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학자 Michael Green 은 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많은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12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고전 15:12-14)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의 중심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개연성 자체를 공격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신화, 우화 또는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이 혹독한 시험을 진정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이 사실이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자신에 대해 주장하신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비평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것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면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제대로 변호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다니며 도전을 받으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당신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회심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 주일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참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 일요일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알고 있거나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관해 도전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장이나 가설 중 일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

한 것은 그것들을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각 요점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첨가할 수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원하는 모든것을 말하지는 못할겁니다. 따라서 간략한 개요만 제공하겠습니다.

Part 1

Let us begin our investigation looking at what sceptics say regarding Christ's death on the cross. The first two theories are futile attempts to claim that He did not actually die on the cross at all. Therefore He did not need to be resurrected.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시다. 처음 두 이론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니 부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헛된 시도입니다.

The swoon theory

Let us begin with a theory known as the “Swoon or resuscitation theory.” Those holding this view claim that Jesus did not actually die upon the cross. Instead, he swooned or fainted and was placed unconscious in the tomb. In the cool of the tomb and due to the reviving properties of the spices something amazing happened. He revived sufficiently enough to struggle out of the bandages, roll the heavy stone away, walk out and convince everyone He had risen from the dead.

This theory is not an old one. Among those first proposing this idea was the German Karl Friedrich Bahrdt (1741-1792). He proposed this theory in around 1780. I have also heard of it being attributed to a man named Karl Venturini (1768-1849). Today this theory remains popular among Muslims who traditionally reject Christ's death on the cross. Most scholars and rational thinkers however reject it. What do you think? Can this theory stand up against reason, evidence and the biblical evidence?

The answer is no on so many levels.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ordered Christ's crucifixion. Jesus' executioners weren't an inexperienced lynch mob. They were highly trained and experienced Roman soldiers who regularly crucified people. I have read accounts of one or two people surviving crucifixion. Josephus wrote that he was watching a crucifixion in the village of Thecoa when he saw three people he recognized (former acquaintances). He convinced Emperor Titus to take them down. Two of them died despite the best physicians available tending to them, but one of the three recovered. So surviving a crucifixion whilst possible was very rare. There is a good reason for this. This brutal and horrific form of death was not only intended to punish people. It was employed as a very visible show of who was in charge and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rebelled. Therefore it was designed to exhibit people dying slow agonising deaths. Also we should note that Roman soldiers didn't often make mistakes. They dare not. If you failed in your duty you faced severe punishment or even death from your superiors.

We must also consider the physical condition of Jesus. Is it conceivable that a man in His physical condition could revive and walk around? It's highly doubtful that a man who had spikes driven through the ankles or feet would ever walk properly again. This was not the only horror inflicted upon Him. The gospels tell us that He had been scourged by the Romans (John 19:1).

"기절 또는 소생 이론"으로 알려진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는 기절하여 무의식 상태로 무덤에 안치되었고 무덤의 서늘함과 향신료의 소생 특성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가까스로 깨어나서 봉대를 풀고 무거운 돌을 굴러 치우고 밖으로 나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다는것입니다.

이 이론은 오래된 이론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들 중에는 독일인 Karl Friedrich Bahrdt(1741-1792)가 있습니다. 그는 1780 년경에 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Karl Venturini(1768-1849)라는 사람이 제안했다고도 합니다. 오늘날 이 이론은 전통적으로 그

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와 합리적 사상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이론이 이성, 증거, 성경적 증거에 맞서 설 수 있습니까?

대답은 많은 수준에서 '아니오'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자들은 경험이 없는 린치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도로 훈련되고 경험 많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살아남은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테코아 마을에서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던 중 자신이 알아보는 세 사람(이전 지인)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내려달라고 티투스 황제를 설득했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최고의 의사들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지만 세 명 중 한 명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럴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잔인하고 끔찍한 형태의 죽음은 단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자가 누구인지, 만약 당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매우 눈에 띄는 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자주 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감히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상급자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님 신체 상태의 사람이 소생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발목이나 발에 못이 박힌 사람이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가해진 유일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요 19:1).

The scourging

This was done with a whip known as the *flagrum*. From the whip's handle several leather straps extended. Attached to these straps would be pieces of sharpened metal, stone, bone or glass. On occasion hooks were even attached to the ends. It was designed to shred or flay the skin from the body. It was common to see its blows expose muscle, bone and even internal organs.

It was not uncommon for people to die under the merciless blows of the whip.

Following this Jesus was further abused and forced to carry part of His own cross.

He was remember too weakened to do this, Simon of Cyrene was forced to help (Matt 27:32). He was then nailed to the cross through the wrists and ankles. Later when checking to see whether He was dead a soldier pierced Jesus in the side with a spear (John 19:34). He was declared to be dead. His body was then taken down wrapped in 75 pounds of spices with bandages and placed in a tomb (John 19:39-40).

So, is it reasonable to think that in this condition Jesus wriggled out of the bandages, pushed away the heavy stone and staggered back into town. Even if all this were true would the disciples or others have been convinced that here was a man who had conquered death? Hardly!

No, the Lord Jesus was dead. All the gospels affirm this. He was dead in the judgment of the soldiers, in the judgment of Pilate, in the judgment of the Jews who requested the guard for the tomb, and in the judgment of the women who went to the tomb to further prepare the body with spices. Are we really to think all these people failed to notice that He was really alive? I think not. Let us next consider the substitution theory.

채찍질.

이것은 편모로 알려진 채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채찍의 손잡이에서 몇 개의 가죽 끈이 뻗어 나가고 이 끈에는 날카롭게 깎인 금속, 돌, 뼈 또는 유리 조각이 달려있습니다. 때때로 갈고리가 끝에 부착되었습니다. 몸에서 피부를 갈가리 찢거나 벗겨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의 타격은 근육, 뼈, 심지어 내부 장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채찍의 무자비한 타격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더욱 학대를 당하셨고 자신의 십자가 일부를 짊어지도록 강요당하셨습니다. 그는 너무 쇠약해져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마 27:32). 그런 다음 그는 손목과 발목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요 19:34). 그는 죽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은 75 근의 향품에 싸인 채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요 19:39-40).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가 봉대를 풀고 비틀거리며 무거운 돌을 밀어내고 비틀거리며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것을 확증합니다. 군인들의 판단과 빌라도의 판단과 무덤을 지키도록 간수를 청한 유대인들의 판단과 또 향료로 시체를 더 예비하기 위하여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대체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substitution theory

The substitution theory again sets out to disprove the actual bodily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The first states that it was not Jesus who died on the cross. It was someone else (a substitute) who just looked like Jesus.

When this substitution took place is not elaborated on. The Lord Jesus was never left unattended or unguarded. This is the first major obstacle facing those proposing this idea. You may sometimes see this theory referred to as the “twin theory.” As the name suggests it was “Jesus twin brother” who died in Jesus place. This meant that Jesus could later reappear on the scene and claim He had risen from the dead. Scripture tells us that Jesus did have four half brothers (Matt 13:55). But He did not have a twin.

Today this theory is popular with Muslims. There is a verse in the Qur'an saying of Jesus that, "they killed him not, nor crucified him, but so it was made to appear to them." Because of this many Muslims hold to the substitution theory.

The second version of the substitution theory says that it really was Jesus who died but after His death another person impersonated Him and persuaded the disciples that he was Jesus. The disciples were convinced by this “stand in” and went around telling everyone that Jesus had come back from the dead. What do you think? Are either of these theories plausible?

I'm not convinced. Let us consider the “Twin theory.” For it to be true everyone has to be either stupid or inept. The Jewish authorities arrested and tried the wrong man. Remember that they had seen, met and spoken with Jesus on numerous occasions. He was a very well known public figure whom they despised. They wanted to see Him killed. Are we also to accept that the Roman authorities put to death the wrong, and presumably innocent man. Jesus too of course was not guilty. Are we also to think that His own mother who was at the cross didn't notice that it was not her son.

What about the person pretending to be Jesus after the crucifixion? Are we to assume that Jesus' intimate disciples didn't recognise this man as an imposter. That they failed to notice that this man was not quite as great as their original Rabbi. This does not mesh with the Jesus they encountered post resurrection. He could seemingly pass through locked doors and do other miraculous things. Once again it just not a plausible theory. The plain truth is as follows.

Jesus knew He would die in this terrible way. He willingly gave himself to it. He was not looking for someone else to step in and take His place.

For all these reason we can reject these theories.

So let us assume that we have convinced our sceptic friend that Jesus did really die upon the cross.

His body we are told was placed in the empty tomb belonging to Joseph of Arimathea (Matt 27:57-60). The next issue to address regard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body of Jesus. At dawn on the very first Resurrection Sunday a group of women followers discover the tomb empty.

It's worth noting here that it was women who were the first witnesses. Women held a very lowly position at the time of Jesus. There was a commonly used Jewish prayer that men said at the beginning of the day, it went as follows,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ruler of the universe who has not created me a woman." that prayer very well represents the position and place women held at this time. Women were not permitted to appear in court as a witness and their opinions or views were not highly regarded. This adds credence to the fact that what the bible records is accurate. If you were making up the story after the fact you would never have women being the first witnesses. You would have had the male disciples discovering the empty tomb.

Let us now turn our attention to the tomb of Jesus. Why was the tomb empty? Where did Jesus body go? Let us begin with the theft theory.

대속 이론은 주 예수의 실제적인 육체적 부활을 반증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다른 사람(대리인)이었습니다.

이 대체가 언제 일어났는 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시신은 결코 홀로 방치되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첫 번째 주요 장애물입니다. 때때로 "쌍둥이 이론"이라고 불리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대신 죽은 사람은 "예수 쌍둥이 형제"였다. 이것은 예수가 나중에 현장에 다시 나타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네 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마 13:55). 그러나 그는 쌍둥이 형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이론은 무슬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코란에는 "그들이 그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박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보이도록 꾸몄더라"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대체 이론을 고수합니다.

대체 이론의 두 번째 버전은 실제로 죽은 사람은 예수였지만 그분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그분을 사칭하여 자기가 예수라고 제자들을 설득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대리인"을 예수로 믿고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느 한 가지라도 그럴듯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쌍둥이 이론"을 고려해 봅시다. 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대단히 어리석고 무능해야 합니다. 유대 당국은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고 재판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고, 만났고, 그분과 대화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경멸하는 매우 잘 알려진 공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또한 로마 당국이 아마도 엉뚱하게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켰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십자가에 못박힌 후에 예수를 가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가까웠던 제자들이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가정해야 합니까?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원래 랍비만큼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께 걸맞지 않습니다. 그는 잠긴 문을 통과하고 다른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그럴듯한 이론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의적인 친구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확신시켰다

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마 27:57-60).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부활 일요일 새벽에 한 무리의 여성 추종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여자들은 매우 천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대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 우리 하느님,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이 기도는 그당시 여성들이 가졌던 지위와 위치를 아주 잘 나타냅니다. 여성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의견이나 견해는 높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이 정확하다는 사실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만약에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면 결코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지 않았겠죠. 남자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립시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나요? 예수의 몸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난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 theft theory

Those that hold to this view claim that the disciples came to the tomb and took Jesus body. They then carefully crafted the story that He had risen from the dead. Let us consider the facts. The Jewish authorities were fearful that this might happen. Therefore they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a guard to be placed on the tomb. They were given guards and the stone blocking the entrance had a seal placed upon it (Matt 27:62-66).

We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demeanour of the disciples at this time. They were fearful and dispirited. Mark tells us that they fled for their lives when Jesus was arrested (Mark 14:50-52). So they were hardly inclined to overpower four battle hardened Roman guards and then create an elaborate lie. And even if they'd taken the body what purpose would it have served? There was nothing really to be gained from making up this story. People had flocked to Jesus because of who He was. They were fascinated by Him, what He could do and how He might benefit them. Without Him the movement He created seemed destined to flicker out. We should ask the obvious questions about the disciples motivations for making up a story. Did the disciples benefit financially? Did they gain power, wealth or prestige? No, far from it they all went on to devote their lives to evangelism and in all **expect** John's case die as martyrs for Christ. We should not forget what the disciples thought when they first received the news about the empty tomb from the women. Luke tells us,

And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idle tales, and they did not believe them. (Luke 24:11)

The apostles had no reason to counterfeit Jesus' resurrection since they did not even believe it themselves. So think about it rationally. Not one of the disciples ever backed down or confessed that they'd made it all up. At the point of death none of the ever recanted. We know from history that people do on occasion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sincerely believe to be true. We have many examples of suicide bombers believing in a cause (which may be false) and being willing to die for it. But how many people would die a horrible death for something they know not to be true.

이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만들어냈다. 사실을 고려해 봅시다. 유대 당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경비병을 무덤에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을 받았고 입구를 막고 있는 돌에는 봉인을 하였습니다(마 27:62-66).

우리는 이때 제자들의 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낙담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막 14:50-52). 그래서 그들이 전투로 단련된 로마 경비병 4명을 제압한 다음 정교한 거짓말을 꾸며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목적에 기여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만

들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분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수 있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그분이 만들어낸 그룹은 곧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동기에 대해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재정적으로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권력, 부 또는 명성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전도에 바쳤고 요한 뻘고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리고 그들의 말은 그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누가복음 24:11)” 사도들은 그들 자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위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지어냈다고 물려서거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진심으로 참되다고 믿는 것을 위해 때때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범이 대의(거짓일지라도)를 믿고 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끔찍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The Jewish authorities took the body

Did the Jewish authorities take Jesus body in order to thwart the disciples from claiming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Such a suggestion seems most unlikely. They remember had been the ones to ask for a guard in order to stop this happening.

If there was a guard on the tomb why would they need to take the body themselves? It would have been unnecessary.

Matthew tells us that w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body was missing the Jewish leaders bribed the guards to say the disciples had stolen it (Matt 28:11-15). They were most unhappy that the disciples were going around saying the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If they had possession of the body they could have stopped this “dangerous cult” instantly. Show the remains of Jesus body and Christianity dies instantly. The fact that they did not, or could not do this means they were not in possession of the body.

유대 당국은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의 몸을 가져갔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요청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덤에 경비원이 있다면 왜 그들이 직접 시체를 가져갈까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간수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마 28:11-15). 제자들이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니 그들은 매우 싫었습니다. 그들이 시신을 소유했다면 그들은 이 "위험한 숭배"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줬다면 기독교는 즉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몸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Roman authorities moved the body

This is an equally unrealistic theory. How would it have benefited the Romans to have Jesus body? On the contrary it could have led to political unrest. What the Roman authorities wanted above all else was peace and stability. Moving the body would have caused a great disturbance and annoyed both Jews and Christians. Ideally Pilate would have wanted the body to remain in the tomb and the whole matter to be forgotten. It's very unlikely he would have ordered his men to remove the body.

이것은 똑같이 비현실적인 이론입니다. 로마인들이 예수의 몸을 가졌더라면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요? 오히려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시체를 옮기는 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큰 소란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상적으로 빌라도는 시체가 무덤에 남아 있고 모든 문제가 잊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시신을 치우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The “no burial” theory

This theory claims that Jesus body was never put into a tomb. Instead, He was thrown into a mass grave for criminals as was the Roman custom in other parts of the empire. As I mentioned before crucifixion was intended to send a message. Bodies were often left on the crosses as they rotted and were eaten by birds. Eventually the bones were collected and dumped in mass graves. Things however were different in Israel. The Jews were law bound to give even criminals a proper burial. The historian Josephus wrote, “The Jews are so careful about funeral rites that even malefactors (criminals) who have been sentenced to crucifixion are taken down and buried before sunset.”

All four Gospels confirm that Joseph of Arimathea took custody of Jesus’ body and provided an honourable burial for Him. Joseph was an important and well known public figure. We are told that he was a member of the Sanhedrin (Mark 15:43). This means anyone doubting this actually took place could inquire and discover the facts for themselves. The Jews knew where the body was taken and that was why they requested a guard and a seal for the stone.

What are we to make of all this? As we have seen.

- The disciples didn't take the body.
- The Jewish or Roman authorities didn't take the body

And yet we know the body was buried and the tomb was found empty.

The only reasonable explanation that satisfies all the criteria is that the tomb was empty because Jesus had risen and left it Himself. No other explanation can adequately answer all the objections we have looked at. Let us look at the final theory often thrown out to explain away the resurrection. It is centred on the nature of Jesus' post resurrection appearances.

이 이론은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힌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는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로마의 관습에 따라 범죄자들을 위한 공동 무덤에 던져졌다. 앞서 말했듯이 십자가 형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썩으면 새들에게 먹혔 습니다. 결국 뼈는 수집되어 대량 무덤에 버려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상황이 달랐습 니다. 유대인들은 범죄자라도 합당한 매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 세푸스(Josephus)는 “유대인들은 장례 예식에 매우 신중하여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악인(범죄자)도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어 매장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아리마태아의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맡아 합당한 장례를 치렀음을 확증합 니다. 요셉은 중요하고 잘 알려진 공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걸 알고있습니다(막 15:43). 이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의심하는 사람들 누구나 스스로 이 사실을 조사하고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져간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과 돌에 대한 인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 제자들은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 유대교나 로마 당국은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체가 묻혔으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셨기 때문에 무덤 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우리가 살펴본 모든 반론에 적절하게 대답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던져지는 마지막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은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의 본질에 중점을 둡니다.

The hallucination theory

The hallucination theory states that everyone who claimed to see the risen Lord was hallucinating. The disciples really did “see” Jesus, but these sightings were merely hallucinations in the minds of Christ’s followers, not genuine encounters with a resurrected man.

David Strauss popularized this theory in his book “*A New Life of Jesus*” published in 1879. The theory was the most popular naturalistic explanation for the resurrection of Christ until it fell out of scholarly favour about 100 years ago.

Today, however, the hallucination theory has made something of a come-back. How well does it explain the facts?

Not very well. Firstly, hallucinations occur only to individuals, not groups.

Clinical psychologist, Gary R. Collins defines hallucinations by stating, “Hallucinations are individual occurrences. By their very nature only one person can see any given hallucination at a time. They certainly are not something which can be seen by a group of people.”

Another clinical psychologist Gary A. Sibcy surveyed 20 years worth of professional peer reviewed literature and concluded, “I have yet to find a single documented case of a group hallucination.”

We know from the bible that there were several resurrection accounts that included groups; the women at the tomb, the disciples (both without and with Thomas), the seven disciples who saw Jesus on the shore while fishing, and the 500 who all saw Jesus at once.

Secondly, hallucinations do not generally transform lives. However, in the case of those who were eyewitness of the resurrected Jesus, their lives were radically transformed.

Thirdly, many people were alive during that time who could have discredited the eyewitness accounts if they did not occur. When Paul wrote that 500 people had seen Jesus alive again after His resurrection (written about 20 years after the events), he claimed that most of these people were still alive (1 Cor 15:6).

Fourthly, hallucinations cannot eat or be touched. As Josh McDowell states, “Christ ate with those to whom he appeared. And he not only exhibited his wounds, but he also encouraged closer inspection. An illusion does not sit down and have dinner with you, and cannot be scrutinised by various individuals at will.”

Fifthly and finally. Even if the hallucination theory were true, it would only explain Jesus’ appearances, not the empty tomb. All a sceptic would have to do would be to open the tomb and reveal the dead body and people would realise they were just hallucinating.

So as with all the other theories we have looked at the hallucination theory is inadequate. It is once again the invention of people who do not want to accept the obvious truth.

환각 이론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각을 경험하였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러한 목격은 부활한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환각에 불과하다.

David Strauss 는 1879 년에 출판된 그의 책 "A New Life of Jesus"에서 이 이론을 대중화했습니다. 이 이론은 약 100 년 전에 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자연주의적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각 이론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별로 못합니다.

첫째, 환각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나타납니다. 임상심리학자인 Gary R. Collins 는 다음과 같이 환각을 정의합니다. “환각은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본질적으로 한 번에 한 사람 만 주어진 환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임상 심리학자 Gary A. Sibcy 는 20 년 분량의 전문 동료 검토 문헌을 조사한 후 "아직까지 문서화된 집단 환각 사례를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룹을 포함하는 몇 가지 부활 기록이 있음을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덤

에 있는 여인들, 제자들(도마가 없는 것과 함께 있는 것 모두), 고기잡이를 하다가 해변에서 예수님을 본 일곱 제자, 그리고 한꺼번에 예수님을 본 500 명.

둘째, 환각은 일반적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목격자의 기록이 없었다면 그 기록을 의심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500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썼을 때(그 사건들이 있던 지 약 20 년 후에 기록됨), 그는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고전 15:6).

넷째, 환각은 먹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Josh McDowell 이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가 나타나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면밀한 관찰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환상은 당신과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지 않으며, 다양한 개인이 마음대로 면밀히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각 이론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의 출현만을 설명할 것입니다. 회의론자가 무덤을 열고 시체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단지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다른 모든 이론 과 마찬가지로 환각 이론은 부적절합니다. 다시 한번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발명품입니다.

Conclusion

Right from the beginning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was central to the preaching and teaching of the early church. In Acts chapter 1, Matthias is chosen to replace Judas as an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n Acts 2, Peter, in his powerful Pentecost proclamation preaches on the resurrection. In Acts 3, at a place called Solomon's Colonnade, Peter again tells his hearers about the resurrection. In Acts 4, we read that the priests,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were so disturbed by that Peter and John were proclaim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n Jesus that they threw them into prison. In Acts 10, Peter, at a large gathering of people in the house of Cornelius testifies to the resurrection.

Finally we come to our reading for today. We read from the 15th chapter of Paul'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This letter is conservatively dated to around the mid 50's AD. So about 20 years after Christ's resurrection. It is one of the earliest writing of the New Testament predating the four gospels and the book of Acts. But already by this point the resurrection has become a well established and central core to the belief of Christians. Chapter 15 of 1st Corinthians in some of the most beautiful language we find in the New Testament expresses the central importance of the resurrection to the Christian faith.

Some have even put forward the idea that this was a familiar creedal story.

That is was a common statement that was used to expresses what Christians believed. Simply put it reminds us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the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universe and the core of the Gospel message. If Christ was not raised from the dead think of the implications. He was not who He claimed to be. He was at best delusional at worst a liar. Our sins have not been paid for. We are still lost and without hope.

But we know that this is not the case. He was raised from the dead. It is fact not fable. Because of this our eternal hopes rest in him. He has paid the price for our sins. We can now stand justified before God the Father. He was the first-fruits of the resurrection, and we one day shall follow. Raised up to new life in glorified bodies like His. Jesus conquered Death. It has forever lost its sting. It is this we remember and celebrate on Resurrection Sunday. This greatest of all days. I will close today by reading the Apostle Paul's words of life;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행전 1 장에서 맛디아는 유다를 대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 장

에서 베드로는 그의 강력한 오순절 선포에서 부활에 대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 장에서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서 베드로는 다시 청중에게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 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소동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 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15 장에 있습니다. 이 편지는 보수적으로 서기 50 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약 20 년 후입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보다 앞선 신약성서의 가장 초기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점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잘 확립되고 중심적인 핵심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장은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활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표현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친숙한 신조 이야기(사도신경같은)였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의 전환점이자 복음 메시지의 핵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그가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껏해야 망상에 가까웠고 최악의 경우 거짓말쟁이죠. 우리의 죄 값을 치루지 못했으니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희망이 없겠쥬.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화가 아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그 분 안에 둡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고 우리도 어느 날 뒤따를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된 몸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에 이것을 기억하고 경축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1 Moreover, brethren, I declare to you the gospel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and in which you stand, 2 by which also you are saved, if you hold fast that word which I preached to you—unless you believed in vain.

3 For I delivered 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4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1-3)

1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2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 무덤에 묻히셨다가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